

기록영화 식코(Sicko)를 활용한 수업콘텐츠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General Education Content using Documentary Film <Sicko> on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허재현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Jaeheon Heo(iscuhjh@iscu.ac.kr)

요약

이 연구에서는 기록영화 <식코>를 활용한 교양수업이 수강생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과 의료공급자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로 인해 공보험의 역할 강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당연하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뿐 아니라 보험료에 따른 급여서비스 차별이 없어 민간보험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과 역할 강화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일개 대학의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식코>의 내용을 수업 콘텐츠로 학습하고, 학습 전후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하였다.

■ 중심어 : 국민건강보험 | 영화 | 교양교육 | 교육콘텐츠 | 식코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 of a documentary film, <Sicko>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It is needed that public support to exp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o intensify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documentary film investigates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comparing with the non-profit universal health care systems of Canad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Cuba. So an online education content for the general education was developed using this film and the surveys were carried out to gather information about perception, satisfaction and opinion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efore the lesson and after. And paired t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is education content using the film on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way to develop education contents for improving the understanding public health system and to verify the effect of education contents were discussed.

■ keyword : National Health Insurance | Film | General Education | Education Content | Sicko |

I.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 대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해 1977년 직장의료보험으로부터 시작하여 12년 만에 전 국민을 공적인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25년이 지났으나,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이해나 지지는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연대적 지지기반이나 민주적 절차의 논의를 거쳐 도입되었다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을 달래기 위해 국가가 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태생적 문제를 들 수 있다[1]. 또한 단기간 안에 전국민을 포괄하기 위해 ‘저급여, 저수가, 저보험료’의 구조로 출발하여 꾸준히 보장성을 높여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선진국의 건강보장제도에 비해 10~20% 정도 낮은 실정이다. 개인 수명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과 다양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전년 대비 2012년 국민의료비의 실질증가율은 4.9%로 OECD 회원국 평균(1.6%)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2년 54.5%로 2005년 53%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으며[2], 공공재원의 낮은 보장성 수준으로 인해 개인 또는 가구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과 미래의 질병위험에 대한 위기감은 높다.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생명보험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로 이어져,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약 12조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41.4% 수준에 이르렀다[3].

민간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맡겨지고 개인의 위험이나 보험료에 따라 가입자 간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즉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나 건강상태 또는 개인의 위험인식에 따라 다른 보장수준의 민간의료보험을 갖게 되는데, 이는 의료이용 수준에 개인 간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건강이나 질병치료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

과 기대가 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하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은 기본보험이고, 민간보험은 기본 이상의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려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현재에 비해 그 기능이 ‘기본적 영역’으로 제한되고 국민의료비 중 사적 영역으로 지출되는 재원 비율이 높아져 건강과 의료이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4].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렵다.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재원마련을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정책 추진이 유리하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커질수록 공공의료보장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추진력은 떨어지게 된다[5].

과거 의료보장제도에 수동적이던 일반 국민들은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로서 그리고 보험가입자로서 지위와 권리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국가 주도로 탄생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노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만족도조사 실시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거나[6],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급 지급, 관리비 등을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내용 특성상 병의원 종사자나 연구자 등 업무 또는 연구의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문적인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와 이해자로서의 경험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5]. 이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중은 한국의료패널 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2009년 기준 77.7%에 이르지만[7][8],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

급여 등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이 갖는 특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이유로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들고 있으나[8], 민간의료보험은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이용과 건강보장, 위험의 분산,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리 민간의료보험사 위주의 의료이용 체계가 운영되는 미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료민영화의 위험을 대표하는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OECD 선진국 중 미국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16.9%)는 가장 높으나 높은 의료비에 비해 기대수명은 81.2세로 우리나라보다 낮으며, 공공재원 비율(47.6%)은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기 때문이다[9].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등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논의는 의료보장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며, 관련 논의가 건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뿐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이 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접하고 논의할 기회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한데, 건강보험제도나 사회복지제도를 가르치는 과목 이외에는 관련 정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가 드물며, 이러한 과목은 전문성이 높고 친숙하지 않아 관련 전공자들이 수강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대학교육에서 융복합 교과목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통적인 단일 전공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외에 새로운 교과목의 필요에서 설계된 융복합 교과목들이 증가하고[10], 영화, 문학,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1]. 이 중 영화는 현대인의 삶에서 일상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직접 시각에 호소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언어 해설보다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어 영화 등의 영상매체는 특정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쟁점을 부각해주는 데에 유용한 교육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활용하여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 수강생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논의를 촉진하는 데에서의 교육영

화의 유용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영화는 영상텍스트로 현재 가장 쉽게 자주 접하는 매체 중의 하나이다. 영화는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담아 내며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고 현실에 없는 상상 이외에도 현실의 문제나 갈등상황을 담아내는 데에 유용하다[13]. 그래서 영화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으며[12-17], 무엇보다 수업 주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에 유용하였다.

영화가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언어학습이나 글쓰기 등 언어교육 부문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영어교육 학계에서는 영상영어교육학회가 창립되는 등 영어 수업에서 영화 활용방안, 교수요목 및 교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영화를 활용한 영어교육 효과의 메타분석 결과, 영화 활용 수업은 중학생 이상에게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선행 연구들에서 영화 교육효과에 대한 통계분석결과의 제시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대체로 언어능력의 하위요소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특히 듣기 부문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16]. 글쓰기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거리감을 더 느끼는 이과생에게 영화평 쓰기를 활용하여 글쓰기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13]. 한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도 영화를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 생명윤리, 노화와 고령사회,에 대한 이해, 동성애와 동성 결혼 등의 주제에 대하여 영화를 활용한 수업은 이해를 도모하거나 태도에 일부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15][18][19].

최근에는 인문사회 분야 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하고 있었다. 영화를 활용한 교육은 과학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향상에 유용하며[20], 보건 의료 정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보안, 의사소통, 사생활이나 존엄성과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등 지식과 태도 측면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유용한 교육매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17]. 최근 국내 대학에서는 학부제 실시 이후 다양한 과학기술 소양과목을 제공하면서 나열식의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 적절한 교육 방법 개발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4]. 또한 단일 전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변화된 사회와 인재상과 기업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이한 전공과 지식의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문제의 파악과 해석, 창의적 해결방식 도출 그리고 도출된 의견과 해결방법을 글과 말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기르기 위해 융복합교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교과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고와 능동적 참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과과정에 영화를 활용한다[10].

대학교육에서 과학 분야 수업 도구로 영화를 활용할 때에는 교수자는 영화에 담겨져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화 전체를 감상하여 학습과 토론이 강화될 수도 있으나, 영화 전체보다 단편적인 영화클립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영화 주제와 간단한 내용에 대해 교수자가 설명하고, 영화 속 주요 장면을 편집하여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13][17]. 한편, 영화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철학과 작품경향, 상영 당시의 반응이나 이슈화되는 과정 등 영화 자체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영화에 담겨진 문제를 분석하고 영화의 해석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시각을 분리하게 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이슈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10].

3.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담은 기록영화를 이용하여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수업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업 전후의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수준을 비교하여 영화를 이용한 학습콘텐츠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내용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 콘텐츠는 이론 중심이 아니라 생생한 사례가 담겨진 기록영화의 내용에 큰 비중을 두고, 영

화 내용 학습 이후 관련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해당 수업 전과 후로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인 검증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수업 전 설문조사와 수업 후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할 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수업 전 설문조사와 수업 후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할 때, 현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다.

가설 3. 수업 전 설문조사와 수업 후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은 공적보험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좀더 지지하는 것으로 변화할 것이다.

상기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교육을 위한 수업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영화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연구방법

1. 대상과 절차

수업 및 설문조사는 일개 사이버대학교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교양과목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사회복지 이슈와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이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교과목은 인권, 분배정의와 같은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이해로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의료 등 사회복지 관련 주제들을 매주 한 가지씩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주차별로 수업주제와 관련된 영화들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기초적인 이론과 용어에 대한 교수자의 강의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과제와 토론을 수행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교과목의 주차별 학습주제 중 “건강보장제도와 복지”라는 주제를 다룬 교육콘텐츠를 학습하게 하고, 학습 전 그리고 학습 후 등 총 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하여 조사

하였다. 설문조사는 소속대학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1차 설문은 2013.9.25.-10.26, 2차 설문은 11.11-12.8. 동안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행하였다: “본 설문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인식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교과목을 수강하시는 재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수업 개발 및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강생 241명 중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219명이며, 이들 중 의료급여 대상자 23명을 제외한 196명의 응답을 취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수업 콘텐츠의 구성

사이버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주차별로 제작된 동영상 수업콘텐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과목 중 “건강보장제도와 복지”라는 주제의 수업콘텐츠 제작에 활용된 영화는 다큐멘터리 <식코(Sicko)>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7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미국의 의료이용 현실을 고발하였다. 미국은 소위 선진국이지만 공공재원을 통한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21]. 다큐멘터리에서는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의료보험이 있어도 과거 병력이나 민간의료보험회사의 급여제한 기준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게 되는 미국의 의료이용 현실을 다양한 실제 인물들을 통해 가감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 등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의료이용 현실을 비교하도록 하여 미국의 의료 체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개혁이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22].

수업 콘텐츠는 “학습목표-영화소개 및 내용-관련 이론-학습정리와 평가” 등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수업 콘텐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수업 단계별 진행방법 및 상세내용, 소요시간

단계 (진행 방법)	주제 (소요 시간)	콘텐츠 내용
학습 목표 (강의)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의료이용 실태와 문제 원인 ■ 의료보장제도제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보건 의료제도의 발전방향
영화 내용 (강의)	영화 소개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제작연도, 다큐멘터리 특징
	미국에서의 의료 이용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험이 없어서 직접 상처를 꿰매거나 비싼 의료비 때문에 절단된 손가락 중 일부만 붙인 사람 ■ 의료보험이 있으나 수술비 및 인상된 보험료로 생활고를 겪게 된 노인들 ■ 민간의료보험이 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거부를 당한 사례들 ■ 보험사에 소속되어 지급거부결정을 하는 의사들의 참회장면 ■ 의료비가 없어 버림받은 환자들 ■ 미국의 의료보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로비활동
	영국에서의 의료 이용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없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교통비를 받는 환자 ■ 공무원이지만 적지 않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환자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공직 의사의 인터뷰내용
	쿠바에서의 의료 이용 (8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의료보장제도 ■ 나라가 부강할수록 국민을 더 잘 돌봐야 한다는 알레이다 게바라(체 게바라 딸)의 인터뷰
관련 이론 (강의 및 인터뷰)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장제도의 개념과 유형 ■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 바람직한 보건 의료의 필요조건 ■ 국내의 의료민영화 논쟁 현황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안
학습 정리 (강의)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미국과 국가 의료보장제도가 운영되는 다른 국가 간의 의료이용 현실 비교 및 의료민영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사회 전반의 열린 논의와 합의 필요성

수업 내용은 교수 강의와 교수 간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영화 내용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이 <식코>를 직접 감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수자가 주요 장면을 캡처한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스토리를 설명하는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건강보장제도 관련 이론은 해당 교양과목 담당교수와 “건강보장제도와 복지” 수업을 강의한 교수 등 2인이 인터뷰하는 형태로 설명하였다.

3.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첫째,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대한 동의,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물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건강보험료의 적정성, 건강보험료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 현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있어서 보장성 확대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조사내용별로 세부 문항을 선별하였는데, 구체적인 문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문항을 참조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시행되었으며, 2009년부터 중단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국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다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는데[6],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조사내용별 각 문항의 답변에는 주로 5점 척도(“매우 그렇다”에 5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를 활용하였으며, 다만,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은 ‘매우 동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하여 “매우 동의한다”에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문항별 설문조사는 수업 전과 후, 2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조사내용별로 세부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값을 구하여 수업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한편, 건강보험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보장성에 대해 직접 의견을 기입하게 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두 문항은 조사에 사용한 척도가 달라 각 문항별로 변화를 측정하였다. 상기 설명한 조사내용별 세부 문항구성과 신뢰도 검사결과는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표 2. 조사내용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조사내용 (점수범위)	문항구성	Cronbach's Alpha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4점-19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은 나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은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킬 책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눠가진다는 기본 취지에 설정된 제도이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0.818
현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만족도 (3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내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생각할 때, 나 또는 우리 가족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적당하다 ■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0.695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의료비의 약 63%를 보장하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약 ()%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괄호 안에 직접 기입) ■ 건강보험이 현재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매우 동의한다 4점, 어느 정도 동의한다 3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

자료분석은 먼저, 분석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척도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를 구하였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수업전후 비교는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a(SE) 12.1를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양측 검정)인 경우를 통계학적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 중 분석대상은 총 196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 73명, 37.24%, 여자 123명, 62.76%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40대가 101명, 51.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30대 41명, 20.92%, 50대 이상 29명, 14.80%, 20대 25명, 12.76% 순이었다. 건강보험의 직역을 구분하면, 직장가입자 162명, 82.65%, 지역가입자 34명, 17.35%였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171명,

87.24%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전공(학과)과 직업은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직장에서 일하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44명, 22.45%였으며, 응답자의 상당수는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전업가사 또는 구직 중인 경우였다. 소속 학과나 전공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학부(보건행정학 6명, 사회복지전공 72명, 노인복지전공 16명, 복지시설경영전공 11명)에 속한 응답자가 105명, 53.5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담심리학(44명, 22.45%), 경영학(10명, 5.1%), 부동산학(9명, 4.59%), 군경상담학(8명, 4.82%)의 순서로 많았으며, 컴퓨터정보통신, 금융보험, 법무행정, 멀티미디어 디자인,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1-4명의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 수 (단위: 명)
성별	남	73 (37.24%)
	여	123 (62.76%)
연령대	20대(20-29)	25 (12.76%)
	30대(30-39)	41 (20.92%)
	40대(40-49)	101 (51.53%)
	50세 이상	29 (14.80%)
직역	직장보험	162 (82.65%)
	지역보험	34 (17.35%)
민간 의료보험	가입	171 (87.24%)
	미가입	25 (12.76%)
직업	직장근무(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43 (21.94%)
	개인사업(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1 (0.51%)
	직장근무(비보건의료, 비사회복지)	91 (46.43%)
	개인사업(비보건의료, 비사회복지)	14 (7.14%)
	전업가사 또는 학생 또는 구직 중	44 (22.45%)
	무급가족종사자	3 (1.53%)
전공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	105 (53.57%)
	그 외 전공	91 (46.43%)
계		196

2.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수업 전 및 수업 후 등 2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수업 이전 및 이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응답항목별 분포를 구하였다. 또한 수업콘텐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 전과 수

업 이후의 점수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 결과를 수행하였으며, 검증결과는 조사내용별로 [표 4-6]과 같다. 분석결과를 차례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은 수업 전과 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대응표본 t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 문항별 응답자 수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가 8명에서 수업 후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수업 전 설문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가 각 문항별로 2명(나의 가족, 전체 국민), 8명(나)이었는데 수업 이후에는 각각 1명(나의 가족, 전체 국민), 5명(나)으로 감소하였다. 비록 대응표본 t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진행한 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에 한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통해 수업콘텐츠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표 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문항	수업 전	수업 후	t 값 (p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 총점(4점-19점)	17.20 (2.304)	17.30 (2.192)	-0.679 (0.498)
■ 국민건강보험은 나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4.40 (0.926)	4.48 (0.781)	-1.453 (0.148)
■ 국민건강보험은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4.60 (0.698)	4.62 (0.642)	-0.321 (0.749)
■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4.67 (0.578)	4.67 (0.605)	0.117 (0.907)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킬 책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눠가진다는 기본 취지에 설정된 제도이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3.52 (0.612)	3.53 (0.540)	-0.218 (0.828)

업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뿐 아니라 보험료 수준 및 보험료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합을 구하여 총점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수업콘텐츠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업

이전과 이후의 각 항목별 점수 그리고 총점에 대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 사용 및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3개 문항을 합한 총점 등 각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즉 가설 2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답변(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 응답자 수에서도 변화가 확인되었다. 수업 이전에는 34.2%,만이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수업 이후에는 40.3%로 증가하였다. 보험료 수준과 적정사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수업 이전에는 각각 25.0%, 41.3%였는데, 수업 이후에는 각각 26.5%, 42.9%로 소폭 상승하였다. 아울러, 인식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등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수는 수업 이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응답자 빈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11.7%에서 5.1%로, 보험료의 수준에서는 32.7%에서 24.0%로, 보험료의 사용 측면에서는 23.5%에서 12.2%로 변화하였다.

표 5. 현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문항	수업 전	수업 후	t 값 (p 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 총점(3점-15점)	9.38 (2.071)	9.82 (1.810)	-3.627*** (0.0004)
■ 현재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	3.21 (0.953)	3.40 (0.838)	-2.759*** (0.006)
■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생각할 때, 나 또는 우리 가족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적당하다	2.92 (0.922)	3.05 (0.793)	-1.922* (0.056)
■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3.24 (0.736)	3.38 (0.649)	-2.703*** (0.008)

* p<0.1 ** p<0.05 *** p<0.01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태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보장성 비율과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보장성이란 국민건강보험이 진료비를 보장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현 국민건

강보험의 보장 비율(2013년 기준 약 63%)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대략 몇 %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0-100까지의 정수 중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수업콘텐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분석 t 검증을 수행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두 항목 모두 수업 이후 정(+)적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여, 가설 3이 지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각 질문에 대한 응답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 보았는데, 바람직한 보장성 비율로 현 비율(63%)보다 낮은 비율을 제시한 응답자는 수업 이전 조사결과 10.7%에서 수업 이후 6.1%로 감소하고, 8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2.2%에서 38.8%로 증가하였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매우 동의함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함)은 수업 전 69.9%에서 수업 후 76.0%로 증가하였다.

표 6.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의 변화

문항	수업 전	수업 후	t 값 (p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의료비의 약 63%를 보장하고 있음. 향후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약 ()%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괄호 안에 직접 기입)	77.94 (16.833)	80.88 (14.922)	-2.683*** (0.008)
■ 국민건강보험이 현재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매우 동의한다 4점, 어느 정도 동의한다 3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2.56 (0.752)	2.86 (0.728)	-4.076*** (0.0001)

* p<0.1 ** p<0.05 *** p<0.01

IV. 고찰 및 결론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특정의 제도나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는 해당 정책의 시행효과 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구축 및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

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반이 된다. 이 연구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를 활용하는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험의 폐해를 중심으로 다른 기록영화 <식코>의 내용을 위주로 구성된 교육콘텐츠로 교양수업을 실시한 후 성인학습자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여부를 측정하였다. 수업콘텐츠는 다큐멘터리 전체 내용을 감상하지 않고,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교수자가 요약 및 설명하는 형태로 주로 진행되었다. 다큐멘터리 내용 설명 이후에는 간략하게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학문적 개념과 분류, 특성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해경(2010)은 <식코>가 교과목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식코>를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감상하게 하고 미국 의료보험 형성과정 등에 대한 관심 증대, 민간의료보험체계의 문제점, 각국의 의료보장방식에 대한 이해, 노력, 산재, 실업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하였다[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영화를 전체적으로 감상하지 않고 주요 장면을 교수자가 선별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인식과 태도를 설문문항을 통해 조사하고, 수업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언어교육이나 정보기술 교육에 활용되는 극영화에 비해 기록영화는 일반적인 영화기법을 사용하지만 극영화와는 달리, 기록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 객관적이고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식코>는 비록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의 의료이용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식코>는 국내에서는 2008년 4월에 개봉되었는데, 상영관 관객 수는 38,096명에 불과하였다[23]. 그러나 의료, 복지, 교육, 정치, 노동계 등 다양한 모임에서 공동체 상영을 진행하면서 당시 이명

박 정부의 영리법인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경각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30대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로, 성장배경, 선수학습이나 지식수준, 업무경험이나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직무나 경력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아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교양수업은 자신의 직무나 경력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고 흥미나 관심 위주로 가볍게 임할 수 있으므로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관심이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와 정책과 같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는 영화는 영상자료로 우리의 사회상을 이해하고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여 유용한 수단이 되며[15], 허구성이 담긴 극영화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담아내는 기록영화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는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식코>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정과 상업주의에 기반한 미국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프랑스, 캐나다, 영국, 쿠바 등 각 국가의 환자와 의사 등 관련자와의 인터뷰와 감독의 내레이션을 통해 미국과 외국의 의료이용 현실의 차이를 알림으로써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감독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일개 사이버대학의 교양과목 수강생으로 여성 및 4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성인 학습자라는 제한점이 있으나, 기록영화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콘텐츠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수업 이후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현 만족도는 정(positive)의 방향으로,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은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의 특성상 운영자(민간보험회사)가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위주의 의료보장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인한 문제점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실감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가족, 국민 전체를 위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업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수업 이전의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 또는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는 2%-5%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수업 이전과 이후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만족도와 태도 점수의 상당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결과 해석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보험료 수준과 사용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불만족보다는 만족에 좀더 가까웠으나 평균점수가 수업 이전과 이후 모두 5점 만점 대비 3점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즉, 수업 이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이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의 절대적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업콘텐츠의 효과성 크기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의 사용이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보험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간의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과 개선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과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국민의 인식이나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만족도 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태도는 수업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동의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만족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의 크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응답결과와 평균값에 의하면,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현 수준(63%)보다 약 15-20% 정도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이후의 조사결과에서, 100%라고 답한 경우가 수업 이전에 비해 소폭 증가(33명에서 40

명, 16.92%에서 20.51%)하였으나, 평균적인 의견은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를 보장하기보다는 재원조달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보장성 향상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수업 이전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15명, '어느 정도 동의한다' 50명이었는데, 수업 이후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7명, '약간 동의한다' 119명이었다. 완전한 지지와 동의는 아니었지만, 다수의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므로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과 부담이 크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수업 이후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부분적이거나 긍정적 태도로의 변화를 보여준 분석결과는 수업 콘텐츠의 효과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기록영화를 이용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전후의 비교를 통해 콘텐츠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연구대상자가 일개 대학의 교양과목 수강생이므로 콘텐츠 효과를 일반화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체의 평균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응답자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인식과 태도 변화를 평가하는 설문문항과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콘텐츠의 효과나 영향력에 대한 양적 연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콘텐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탐색적 연구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각 조사내용별로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직업, 전공 등)을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판단한다. 교육콘텐츠의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건강보험의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건강상태와 복지태도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24]. 또한 건강보험의 만족도에는 개인의 의료 환경이나 의료이용경험이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복지태도, 국민건강보험의 이용 경험 또는 민간의료보험의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20대와 30대보다 4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분포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분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고, 제도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완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콘텐츠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면,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질문내용에 대해 궁금하더라도 추가 설명을 받을 수 없어 응답자가 정확히 질문을 이해하거나 답변을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조사비용과 소요 시간, 분석대상 수 등을 고려하여 전화, 대면 등의 조사방법을 강구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설문지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반복측정 간격이 응답자별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로 응답자별로 조사간격이 달라 응답자별로 2회의 설문에 응답하는 동안 수업 이외의 요인들에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이용을 하였으나 진료비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면 기존에 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불만족으로 변화할 수 있다. 반복조사에 있어서 조사 간격을 단기, 중기, 장기로 다양하게 설정토록 해 효과의 발생 뿐 아니라 효과의 지속성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 태도 변화와 요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그리고 심도있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

하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또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의 효과 크기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과 홍보에 사용되는 콘텐츠의 효과를 입증하게 할 뿐 아니라,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하부집단을 구분하여 교육 또는 홍보콘텐츠의 개발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융복합 시대에서 초중등 또는 고등교육 과정의 주요 목표는 단순 지식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창의력, 사고력 등 고차원의 능력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집단토론이나 글쓰기 활동이 필요한데 영화를 활용한 교육은 지식 제공 뿐 아니라 소집단토론이나 글쓰기 과제 활동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강의시스템에서 제공된 수업콘텐츠를 개인이 수강하고, 수업 전후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에서 각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질문에 답변하였다. 영화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특정 주제나 과제를 통해 학생들 간 토론이나 사고를 심화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제공한다면 영화교육 효과의 크기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향후 영화를 교육에 활용함에 있어서 강의 주제와 부합하는 영화 선택에서부터 토론이나 과제의 주제, 평가방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를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 구성 및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장제도와 관련된 기록영화로는 <식코>외에도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담은 <하얀정글>이 있으며, 극영화로는 존큐(John Q, 2002), 엑시덴탈러브(Accidental Love, 2015)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수자가 학습주제와 토론 등의 논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습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기록영화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의료현실을 조망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영화내용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한편, 극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수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영화에 대한 기초 정보와 강의 주제와의 연관성, 쟁점을 설명하고 감상지침을 알리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3. 결론

사회 제도와 정책은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협력이 필요하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지식 중심 사회의 직업인에게는 융복합적 지식과 사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와 직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공교육 뿐 아니라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기 위한 교과목 개발과 함께 양질의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록 일개 대학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기록영화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콘텐츠의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영화를 이용한 수업콘텐츠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영화라는 영상매체를 연계하는 교양 교육은 비전공자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데에 유용하다. 현대 사회는 영상매체에 주도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이므로 글보다는 영상화면으로 재구성한 교육콘텐츠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학문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문이나 정보통신,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사회 제도와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 노력과 함께, 콘텐츠의 교육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검증 노력이 지속되는 데에 본 연구가 예비연구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허순임, “건강보험 관련 복지인식”, 보건복지포럼, 제145호, pp.32-42, 2008.
 [2] 정미야,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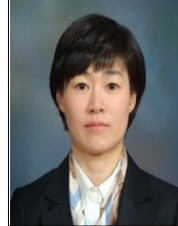
[3] 임복희, 임정도,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도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5권, 제2호, pp.157-172, 2011.
 [4] 박종연, 서남규, 이애경, “국민의 건강보험 인식과 만족에 대한 조사방법의 개발”, 보건과 사회과학, 제22권, pp.97-126, 2007.
 [5] 허순임,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1-13, 2011.
 [6] 서남규, 서수라, 이옥희, 안수지, 조미경,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7] 전보영, 오주환, 권순만,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동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2호, pp.261-288, 2013.
 [8] 정영호, 고숙자, 이은영, 진달래, 김성욱, 한준태,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9]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10] 송인화, “CSI: 영화를 통해 본 과학-사회적 쟁점의 운용 사례를 통해 본 융복합교과의 운용과 기초역량의 강화”, 교양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265-293, 2015.
 [11] 김봉률, “인문경제학 시론 1- 인식론적 전환을 통한 사회과학 수업모델”,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4호, pp.343-376, 2013.
 [12] 이해경, “교과목에서 영화의 활용:<식코>를 통한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이해”,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3권, 2010.
 [13] 황영미, “영화를 활용한 이과생 대학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4호, pp.109-135, 2013.
 [14] 박희숙, “과학 기술 분야 교양과목의 영화 보조 학습자료 연구(I)-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영화 ‘로렌조 오일’”, 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2호, pp.25-37, 2007.
 [15] 이연숙, 임예지, 황지혜, “영화 콘텐츠를 이용한

- 노인환경 이해증진 효과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제10권, 제4호, pp.67-76, 2011.
- [16] 이재영, 문은주, 박옥희, “영어수업에서의 영화 활용의 효과: 국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영상영어교육, 제14권, 제3호, pp.87-106, 2013.
- [17] 오진아, 신혜원, Jennie C. De Gagné, “간호정보학 이해를 위한 영화 ‘The Island’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330-341, 2015.
- [18] 김철권, “게이와 레즈비언을 다룬 영화가 의과대학생의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영화연구, 제56권, pp.103-128, 2013.
- [19] 김선영, “영화를 위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281-290, 2014.
- [20] 권난주, 이재용, “영화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과학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pp.113-123, 2010.
- [21] 오주환, “촛불과 건강”, 진보평론, 제37호, pp.110-128, 2008.
- [22] 서정환, “‘식코’ 보지 않은 이들을 위해”, 월간말, 제263호, pp.82-83, 2008.
- [23] www.kobis.or.kr
- [24] 이훈희, 김윤태, 이원지,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 pp.1-25, 2011.

저 자 소 개

허 재 현(Jaeheon Heo)

정회원



- 1998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약대학(약학사)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서울대학교(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보건정책, 정책효과, 보건교육콘텐츠개발